

출처 : Farmer's weekly 번역 : 편집부

## 아일랜드

# Irish Salmonella outbreak linked to duck eggs 오리알과 관련된 아일랜드의 살모넬라 중독

아일랜드에서는 2010년 8월 오리알의 섭취에 의한 살모넬라 중독이 5건 발생하였다.

이는 최근 몇 년간 아일랜드에서의 가장 높은 살모넬라 중독 발생률이며 이로써 24번째 중독사례가 발견되었다. 아일랜드 식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의 이 살모넬라 중독은 한 농장에서 자가 사육되는 오리에서 생산된 오리알을 섭취하여 발생하였다고 한다.

아일랜드 식품안전청은 살모넬라 중독을 예방하기 위

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합동으로 가금농장 및 자가 사육농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농장에서 지켜야 할 업무규약을 공표한 바 있다. 또한 “보드비아”라는 기관은 안전한 오리알 생산을 위한 계획수립에 힘쓰고 있다.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식품안전청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건강보호감시센터 및 여러 지방정부당국과 함께 살모넬라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
출처 : Science Daily 번역 : 편집부

## 일본

# H5N1 virus may persist on feathers fallen from domestic ducks 고병원성 A 바이러스는 떨어진 오리깃털에 남아있을 수 있다

국립보건연구원의 일본 이바라키 쓰쿠바 과학자들은 2010년 8월 고병원성 A 바이러스(H5N1)는 AI에 감염된 오리에서 떨어진 깃털에 남아있을 수 있으며 바이러스 전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응용환경미생물지에 발표했다.

1997년 아시아지역의 AI 발생 이후 지금까지 유럽 및 중앙아시아, 아프리카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. AI 바이러스는 주로 물새의 분변에 의해 감염됨이 알려졌다. 그러나 불구하고 사람 및 다른 포유동물들은 AI에 감염된 가금과 가깝게 접촉하면서 AI에 감염되었다.

이전의 연구들은 고병원성 AI는 깃털조직에서 증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AI 감염체에서 떨어진 깃털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. 이에 과학자들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오리의 깃털이 미치는 환경적 위험도를 알아보기 위해 3일간 깃털과 분변, 음수를 채취하여 화씨 39도 및 68도에 360일간 보관하였다. 그 결과 깃털에 있는 고병원성 A 바이러스가 두 가지 환경 모두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. 과학자들은 이 결과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오리의 깃털은 접촉해 개물로써 AI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.